유통업계 '가족 마케팅' 활발

가정의 달 맞아 고객 붙들기 '효도 상품전' 등 판촉전

외식업계도 할인행사 등 대대적 이벤트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유통업계가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주요 기념일이 몰려있는 5월은 명절, 연말과 함께 유통업계의 매출 비중이 큰 달이다.

유통업계는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선물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양한 판촉행사를 준비중이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어린이날인 다음달 5일 1층 광장에서 어린이 노래·댄스 경연대회를 연다. 또 9층 아카데미 홀에서는 어린이 인형극 '친구친구 내 친구'(오후 2시), '소와 개구리'(오후 4시)를 선보인다.

또 1층 광장에 공룡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쥐라기 공룡랜드 포토존'을 설치하고 헬로키티 경품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어버이날인 8일에는 '부모님께 사랑을 전하세요'라는 특별행사를 마련해 사연을 보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꽃, 케이크, 와인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어린이날 당일 1층 정문에서 피에로가 요술 풍선을 직접 만들어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매장 내에서는 만화 캐릭터 초콜릿과 막대 사탕을 무료로 증정한다.

또 5월 1~5일까지 6층 아동복 매장에서는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 모습을 담아가세요' 포토존 서비스도 진행한다.

백화점은 또 5월 9일까지 8층 사은행사장에서 가정의 달 특집 행사로 '효도여행 경품 대축제'를 진행한다. 백화점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추첨(5월9일 저녁 7시30분)을 통해 일본·제주도 효도여행 상품권을 증정한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복장을 입은 직원들이 매장을 순회하며 어린이와 즉석사진을 찍고 솜사탕과 팝콘을 나눠준다. 어버이날에는 2층 구름다리(연결통로)에서 3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머그컵에 카네이션 그려주기 행사를 진행한다.

지역 외식업계도 가정의 달을 겨냥한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펼친다.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에서는 어린이날 점심 이벤트로 '피에로와 함께하는 매직 풍선 쇼'를 진행한다. 또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에는 카네이션과 와인을 증정하고 할인된 가격의 스페셜 메뉴도 선보인다.

패밀리레스토랑 빕스는 어린이용 로션 '그린핑거 마이키즈'를 증정하며 씨푸드퓨전뷔페 알래스카에서는 어린이 고객에게 수제 스틱 캔디를 제공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현대·기아차 연료절약 서비스 현대·기아자동차는 친환경 신개념 길안내 서비스인 '모젠 연료절약 길안내 서비스(Eco-Route)'를 개발, 다음달부터 모젠 장착 차량을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평균 12%, 최대 30%의 연료 절약 효과가 있어 연간 40여만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기아차 제공〉

대부업체 TV·일간신문 광고 금지 추진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부업체가 케이블 방송과 일간 신문에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의원 30명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대부업체는 영업소 내부에 광고 표시판 등을 전시, 부착할 수 있지만 영업소 외부에서 광고 내용이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주 1회 이하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에 연 60회 이내로 광고할 수 있다.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외국간행물에도 광고할 수 있으나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에서 열거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대부업체가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하남 '부영 상가' 분양

오늘 오후 3시30분 입찰

(주)부영주택이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하남2택지개발지구 A블럭 '사랑으로 부영' 3차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

상가는 지상 1~3층 20개 점포에 분양면적 1431㎡로 구성됐다. 1층은 마트, 세탁소, 미용실, 베이커리, 부동산 등이 들어서고, 2·3층은 학원, 체육관, 미용실, 중화요리 등의 업종이 입주할 예정이다.

840가구가 입주한 3단지 독점 상가로 높은 수익성이 기대된다. 또 계약 후 즉시 입점 및 전매가 가능해 투자 자금의 회수가 용이하다.

평당 분양가는 1층이 700만~800만원 선이며, 2~3층은 250만~350만원 선이다. 입찰은 28일 오후 3시3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주)부영주택 광주 모델하우스에서 이뤄진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해원에스티 코스닥 퇴출

감사보고 '의견거절' 판정…내달 7일까지 정리매매

광주에 본사를 둔 철강재 생산 업체인 해원에스티(주)가 결국 상장폐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해원에스티가 감사인의 사업연도(2009년 12월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로 다음달 8일 상장폐지된다"고 27일 공시했다.

해원에스티는 지난달 29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판정을 받아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자 지난 6일 이의를 제기하는 등 코스닥 잔류를 희망했지만, 최근 열린 상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원에스티 주식은 상장폐지에 앞서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정리매매가 실시된다. 이 기간에는 가격제한폭 없이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개별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광주 광산구와 순천 서면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해원에스티는 자동차, 건설, 선박 자재로 쓰이는 구조용 강판 생산업체로, 지난 2002년 1월15일 코스닥에 상장했다.

이 회사는 2004년 2000만불 수출탑, 2005년 3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해원에스티의 발행주식수는 3000여만주로 시가총액은 182억원이며, 주당 가격은 현재 600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신세계 내실 '튼튼'… 주가 잘 나가네

6거래일째 상승 14만7500원… 3년만에 최고가

광주신세계의 주가가 6거래일째 수직 상승하면서 3년 여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광주신세계는 27일 전날보다 3500원(2.43%)오른 14만7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4만9500원까지 치솟으며 2007년 5월(19만5500원) 이후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다.

지난 20일 1주당 13만원을 기록한 이래 이날까지 6일 연속 강세를 보이며 주가가 13.5%나 상승했다. 지난해말 불과 수백주에 머물던 1일 평균 거래량도 최근 6000여주를 기록할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다.

광주신세계는 주가 상승요인으로 회사의 내실을 꼽고 있다. 신세계는 올 1분기 총매출이 10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3% 상승했다. 영업이익도 124억원으로 20.2% 증가했다.

또 최근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운 대형주 보다 유망한 개별주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신세계에 관심을 돌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테크노파크 유영태·장 민 단장 취임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6일 최근 선임된 유영태 정책기획단장과 장민 지역산업평가단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공모를 통해 선임된 유 단장은 조선대 공대 교수 출신으로 산학협력단 부단장, 광특화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또 광주시 광산업 2단계 기획위원, 자동차부품산업 로드맵 작성위원, 자동차산업 RIRM작성분과 위원장, 산업정책연구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기획통이다.

장 단장은 전략산업기획단 정책기획실장과 지역산업평가부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산업 정책기획 및 우수 R&D과제 발굴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영태 단장〉 〈장 민 단장〉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